

보도자료



작성부서	(주)바이오니아 진단과학시약본부		
책 임 자	김남일 이사 (042-930-8514)	담 당 자	손정필 부장 (031-628-0500)

바이오니아, 우간다 정부에 B형간염 검사 공급 계약 체결

(주)바이오니아(대표이사 박한오)가 우간다 정부에 B형간염 검사를 위한 분자진단키트와 시스템을 공급한다. 이번 공급은 제조업자개발생산방식(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으로 이를 위해 동아ST(주)와 공급에 관하여 ODM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공급 계약은 B형간염 검사를 위한 HBV 분자진단키트(AccuPower® HBV Quantitative PCR Kit)를 3년 동안 우간다 정부에 공급하는 것으로 2016년도 1차 분은 분자진단시스템과 HBV 분자진단키트를 포함해 58만볼 규모이며, 2019년 까지 추가로 공급할 물량은 매년 75만볼로 예상되며 최소 200만볼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니아의 류태희 해외영업본부장은 “이번 우간다 공급은 아프리카 국가의 조달입찰시장에서의 첫 진입임과 동시에 국제기구를 통한 제품 판매루트의 교두보 확보에 의의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바이오니아는 이를 계기로 B형간염 외 에이즈(HIV), C형 간염(HCV) 등 다양한 품목으로의 추가 판매를 진행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진 비즈니스 모델을 아프리카 시장에서 전략적으로 선점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HIV, HBV, HCV와 TB(결핵) 진단은 분자진단시장의 핵심 품목으로 2016년 세계 분자진단 시장은 9조원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연 평균 성장률은 12.6%에 이른다. 이로써 면역진단제품이 주종인 아프리카 분자진단시장의 초창기에 바이오니아 분자진단 주력제품 매출이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근 바이오니아는 EU회원국인 불가리아에 C형간염 분자진단키트 공급 계약에 이어 이번 우간다 공급까지, 주요 분자진단 품목에서 해외 시장 진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이오니아의 진단키트는 분자진단 시스템 *ExiStation™*을 사용함으로써 환자에서 확보한 검체로부터 핵산추출 및 증폭, 결과 분석까지 모든 과정을 한번에 통합하여 분석할 수 있어 검사자의 편의성이 좋고 검사의 정확도가 매우 높아 시장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바이오니아의 관계자는 설명 하였다.